투데이 칼럼

북한 마약 외화벌이

정 복 규

논설위원

국내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상당량이 북한산이란 추정이 많다. 북한에서 재배하고 만든 마약을 제3국을 거쳐 들여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의 마약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의 마약은 외화벌이 수단에서부터, 주민 일상에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인적이 드문 북한 어느 산골 마을에는 산꼭대기에서 능선까지, 산비탈을 개간해 만든 밭에 흰색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바로 양귀비꽃이다. 북한 어느 양귀비 재배 농장을 2008년 한 민간단체가 공개한 것이다. 이곳은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마약 사업 현장이다. 북한 주민은 아편 농장에 동원되어 아편 진액 채취 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북한은 전 지역에 아편을 국가적으로 재배하는 농장이 있다. 북한은 이를 아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한식 이름으로 백도라지라고 한다. 백도라지 농장이 바로 아편 농장이다.

'백도라지'는 북한이 양귀비에 붙인 이름이다. 북한 당국은 전국 각지 협동농장에 양귀비 생산과 채취를 지시했다. 양귀비 생산은 외화벌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4년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기까지 무리한 치적 사업을 이어갔다.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마약 판매였다. 1980년대부터는 국가 주도의 마약 생산을 본격화했고, 러시아와 중국을 거점으로 수출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편을 밀매하는 북한의 범죄 조직이 러시아 경찰에 적발됐다.

북한의 해외 마약 밀매가 국제 문제로 번지면서 각국의 단속도 강화됐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북한의 마약 생산과 판매 사실이 드러났다.

2003년에는 북한 선박 '봉수호'가 호주에 헤로인 125kg을 몰래 들이다가 호주 군경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약 1억 달러로 추산되는 엄청난 양의 마약 밀수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마약이 배에 실린 것을 북한 선원들은 몰랐던 것으로 호주 대법원은 판결했지만,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보도됐고 북한은 마약 국가로 지목됐다.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자 북한 당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국가 주도의 마약 생산이 본격화하자 민간 영역,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된 것이다. 처음엔 주로 민간 치료제로 아편을 사용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의료체계가 붕괴됐고 마약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혜산 등 북중 접경 지역은 물론 청진 같은 대도시에서도 주민들의 마약 흡입이 이뤄졌다.

20대 청년부터 노인층까지 마약을 한두 번 투약하지 않은 주민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에도 북한 주민들의 마약 남용은 여전했다.

치료약이 부족해 마약을 쓰다 보니 죄의식도 없이 퍼졌다. 경제난으로 생활까지 고달파지면서 강도가 더 센 마약을 찾기 시작했다. '삥두' 혹은 '얼음'으로 불리는 필로폰이 대세가 된 것이다.

심지어 북한군 내부에도 마약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군의관들이 모르핀 주사를 남용하고 대량 밀거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탈영을 한 후 마약에 손을 대거나, 밀매업자들과 결탁하는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실도 군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마약을 단속해야 할 간부급 등 상류층도 중독돼 있다.

2013년 숙청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마약이었다. 장성택은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일하게 된 때부터 마약을 쓰고 도박장을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봉수호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의 개입은 줄었지만 민간 차원의 판매 조직은 더욱 활성화됐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엔 북한산 마약 거래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남북이 지리적으론 가장 가까운 만큼 북한에서의 마약 생산과 해외 거래를 주시해야 한다. 북한 마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마약은 국가 차원의 외화벌이에서 시작해 주민들의 일상까지 장악했다.

사설

전북체육회 관리 감독 문제

전북체육회 관리 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을 맡아오다 민선 체제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운영의 자율성은 커졌다. 그러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낳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년 전 전북체육회가 낸 어느 보도 자료가 있었다.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 기간, 체육회 소속 어느 이사가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겠다며 무상으로 방역을 해줬다는 미담을 소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이사의 가족 명의 업체가 용역비 5백만 원을 받고 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처무와 회계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의 임원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 건은 이해충돌이 명백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사안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 지적도 무시했다. 2년 전 어느 종목단체 회장이 선수들에게 격려 성격의 지원금을 주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백만 원씩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전북도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징계를 요청하는 해당 종목 중앙 단체의 공문조차 여러 차례 외면하다 가장 낮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수익금 관리도 엉망이다. 자체 수입 30%를 적립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선물과 피복 구입 등 방만한 예산 지출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았다. 전북체육회가 한해 받는 지원 예산만 190여억 원이다. 공적 역할에 걸 맞는 무거운 책임과 견제가 뒤따라야 한다.

자체 수입금에 대한 세부 지출 기준 마련과 함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과 적절한 경영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평생교육의 필요성

노인회 전북연합회 부설 노인지도자대학이 지난 4월 입학식을 거행했다. 노인지도자대학은 매주 목요일 전·현직 교수와 사회 저명인사 등 다양한 분야 교수들의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학무지경(學無止境)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사회교육 활동에서 필요한 교육이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높아졌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7년 현재 82.7세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해도 남은 시간이 많다. 단순히 여유롭게 보내는 것만으로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따라서 여생을 위해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지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면 삶이 보다 풍요롭게 될 수 있다.

중장년층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는 세대다. 퇴직 이후에는 단순히 경력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변한다. 가족과 사회적 관계, 재무, 건강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노후준비를 하는데 평생교육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을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노인지도자대학은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다. 열정을 발휘하여 즐거운 대학 생활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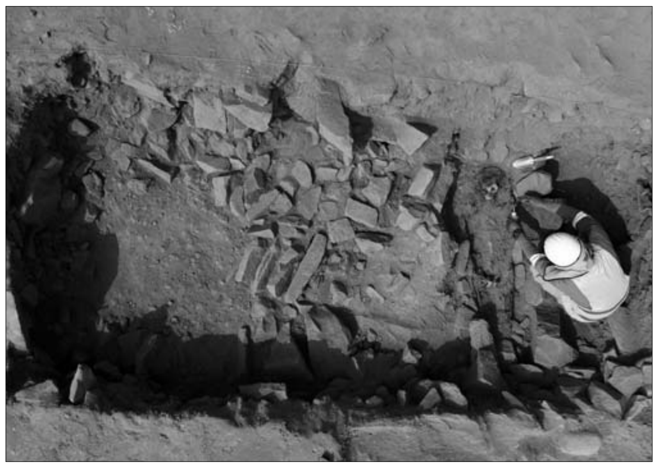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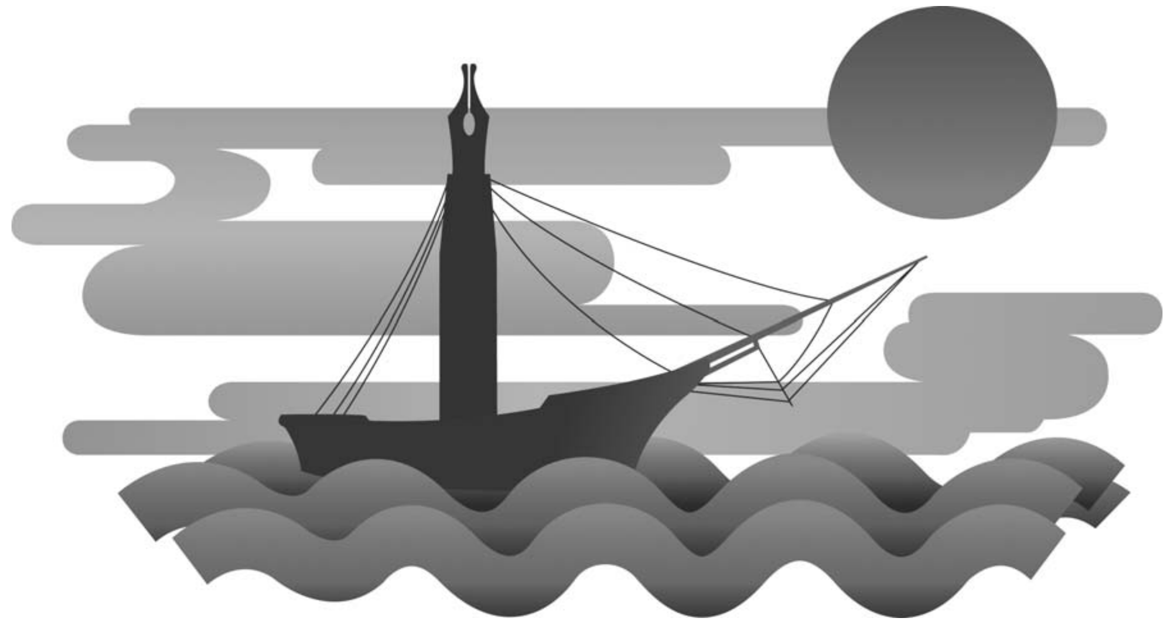
'죽음의 바다' 현수막 든 그리스 시위대

지난 15일(현지시각) 그리스 아테네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대가 이주민 선박 전복과 관련해 '죽음의 바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모여 있다. 지난 14일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인 등 수백 명을 태운 이주민 선박이 전복돼 지금까지 최소 7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자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부는 사고와 관련해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3천년 전 미라 발굴하는 페루 고고학자



지난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인근 엘 리막의 페루 프로축구팀 훈련장 부근에서 한 고고학자가 미라를 발굴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 미라가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 '만차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